

할머니의 이삿짐 품목

한 소년이 할머니 때문에 부모가 자주 싸우는 것을 보았다.

“여보, 이젠 정말 어머님하고는 같이 못살아요.”

엄마의 섯소리 같은 목소리도 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오. 당신이 참아야지.”

아버지의 궁색하신 말씀도 이제는 귀에 익숙해졌다.

“여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머니가 묵으실 방 하나를 따로 얻어서 내보내드리는 것이 어때요?”

엄마의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 남들이 불효자라고 모두들 흉볼텐데...”

“아, 남의 흉이 문제예요? 우선 집안이 편해야지.”

며칠 후 할머니 혼자 이사하시는 날이 돌아왔다.

어린 소년은 공책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너 무얼 적고 있니?”

엄마는 아들이 적고 있는 노트를 들여다보았다.

‘냄비 하나, 전기 담요 하나, 전기 밥솥 하나, 헌옷장...’

소년의 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되어 물었다.

“너 그런 것을 왜 적고 있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소년은 엄마를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이 다음 엄마가 늙으시면 혼자 내보내드릴 때 챙겨드릴 이삿짐 품목을 잊지 않으려고요.”

어린 아들의 이 놀라운 기지에 엄마는 그만 기절할 수밖에!

엄마는 할머니의 이삿짐을 도로 풀어 놓고, 그날부터 할머니에게 온갖 정성을 다 하였다.